

웰빙 차원에서 역기능적 종교성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서 경 현[‡]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종교성이 인간의 웰빙에 대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역기능적인 종교성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역기능적 종교성 척도를 개발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 이전에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들이 웰빙에 역기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관해 면접하였다. 그리고 면접한 내용 및 선행연구와 전문가 자문을 근거로 역기능적 종교성 문항을 개발하였다. 먼저 문항분석과 검사-재검사 신뢰도 검증을 위해 종교를 가진 남녀 대학생 170여명에게 개발된 역기능적 종교성 문항들로 설문하였다. 그리고 신앙인 349명에게 문항분석을 마친 역기능적 종교성 52문항의 설문을 하며, 준거타당도를 검증 위해 삶의 만족과 긍정/부정 정서를 포함한 주관적 웰빙과 심리적 웰빙, 행복감, 정신병리 요인(분노, 불안, 좌절 및 우울)을 측정하였다. 결과적으로 52문항의 역기능적 종교성 척도와 17문항의 단축형 척도를 개발하였다. 52문항 척도는 7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고, 17문항 단축형 척도는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52문항 척도 및 단축형 척도 하위요인들은 대부분의 주관적 웰빙, 행복감 및 심리적 웰빙 변인과는 부적 상관을, 정신병리 변인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역기능적 종교성 척도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정신적 문제를 평가하고 상담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척도 개발, 역기능, 종교성, 웰빙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A2A01022 289).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서경현, (139-742)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815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전화: 02) 3399-1676 E-mail: khshuh@syu.ac.kr

현대인들 중에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꽤 있지만, 종교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쳐 왔다. 특별히 다른 나라의 국민들보다 한국인의 종교성(religiosity)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유승무, 2013). 그리고 한국인의 다양한 종교적 욕구가 그런 종교성을 가지게 하는지 분석되기도 하였다(최현중, 2011). 아무튼 종교성은 인간 의식 내면에 존재하며 개인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력을 발휘한다(Wilber, 1997). 참고로 건강심리학이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의 38번째 분과로 포함되었는데 반해, 종교심리학은 36번째 분과로 포함된 것은 종교성이 인간의 심리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것을 심리학계에서 비교적 빠르게 인식하였다는 것을 방증한다.

종교성이 인간의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rkpatrick, 1997). 다시 말해 종교성이 개인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사실은 실증적으로도 증명되었다. 예를 들어 Chatters 등(2008)의 연구에서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 기분장애로 진단받을 가능성이 더 적고 정기적으로 종교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확률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만 수행된 것으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지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찾을 가능성이 적다는 것은 확실하다. 특히 종교성이 주관적 웰빙 수준을 높인다는 것은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다(Ashkanani, 2009).

하지만 Diener, Tay와 Myers(2011)는 종교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데, 왜 종교를 떠나는 사

람들이 많은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우리에게 합리적 정서행동치료(REBT)를 소개한 Albert Ellis(1980)는 종교성의 역기능을 강조한 바 있다. 게다가 실증적으로 종교성에 정신병리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다(Rosenstiel & Keefe, 1983). Andreasen(1972)은 종교를 ‘양날의 칼’이라고 하며, 종교성의 순기능뿐 아니라 역기능적 차원도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종교성의 심리치료적 요소를 강조한 Bergin(1983)도 종교성에 역기능적인 측면이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사회학적 차원에서 종교성이 문제를 많이 야기할 수 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Provonsha, 2006). 일례로 비교문화학자인 Paul(2005)은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세워진 미국에서 건전하지 못한 여러 사회적 문제들이 종교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문화의 국가들에서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종교성의 역기능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종교의 부작용으로 여기는 사회적 시선들이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젊은이 네 명의 집단자살 사건이 어떤 종교성에 의한 것일 것으로 의심받기도 했다(정지나, 2019). 그런데 종교에 대한 그런 부정적 편견이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유럽 국가들과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무슬림에 관해 과도하게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경석, 2019). Bergin(1983)의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정신건강 차원에서 종교성에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 메타분석에 포함된 24개의 연구들의 50% 정도에서 종교성이 정신건강과 정적

관계가 있었으나 25%의 연구에서는 부적 관계를 보였고, 상관계수의 범위는 -.32에서 +.82까지였다. Larson 등(1992)이 1978년부터 1989년까지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와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에 게재된 50개의 논문들을 분석한 결과 72%(36개)의 연구에서 종교적 헌신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가 정적 상관으로, 16%(8개)의 연구에서 부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와 여러 논문들을 개괄하며 Seybold와 Hill(2001)은 종교성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함께 존재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Bergin(1983)의 연구에서는 종교성과 정신건강 간의 상관관계수 평균은 .09였고, 12년간 진행된 34개의 연구들을 메타분석 한 Hackney와 Sanders(2003)의 연구에서는 종교성과 정신건강 간의 상관관계수 평균이 .10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종교성의 정신건강에 대한 효과의 크기는 .02, 삶의 만족에는 .12, 자아실현에는 .24이었다. Koenig와 Larson(2001)이 850개의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한 결과 80% 정도의 연구에서 종교성이 주관적 웰빙 요인인 삶의 만족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56개의 논문을 메타분석 한 연구(Witter, Stock, Okum, & Haring, 1985)에서는 종교성과 주관적 웰빙 간의 상관관계수는 .14에서 .25까지였다. 이렇게 주관적 웰빙에 대한 종교성의 설명력 혹은 영향력이 6%를 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서경현(2018)은 개념화나 측정의 문제(Chamberlain & Zike, 1989) 혹은 성별이나 연령 같은 조절변인의 존재(Veenhoven, 1994) 때문이라기보다 웰빙에 대한 역기능적 부분이 종교성에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종교를 가진 내담자들을

상담하거나 정신적 문제나 웰빙을 증대하고자 한다면 그들에게 긍정적인 종교성을 평가할 필요도 있지만 역으로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종교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이현주, 이신형, 2018).

한국에서 수행된 연구들에서는 주로 외국에서 개발된 종교성 척도가 사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 종교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널리 사용되는 것이 내·외적 종교지향 척도(I/E-R: Intrinsic/Extrinsic-Revised; Gorsuch & McPherson, 1989)이다. 일찍이 Allport와 Ross(1967)가 종교성을 내적 종교지향과 외적 종교지향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는데, I/E-R도 내적 종교지향 외적 종교지향(E: 6문항)을 측정하며 외적 종교지향을 사회적 종교지향과 개인적 이익 추구 종교지향으로 구분하고 있다. 각각 내적 종교지향과 외적 종교지향이 다양한 정신건강이나 웰빙 요인들과 어떻게 관계하는지가 연구되었다. 또한 웰빙 자체를 영적 차원에서 평가하는 척도도 있다. Ellison(1983)의 영적 웰빙 척도인데, 한국판 영적 웰빙 척도(전겸구, 정봉도, 김영환, 2000)도 있다. 이 척도는 종교적 웰빙과 실존적 웰빙의 개념으로 이론화되었지만, 실존적 웰빙이 충족감과 의미감으로 구분되어 나타나기도 한다(서경현, 전겸구, 2004). 박준성과 정태연(2011)은 한국인들을 위한 종교성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34문항과 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인으로는 신앙, 목표추구, 겸양, 가정화목, 경제적 성공 및 사교가 포함된다. 척도의 요인들을 보면 이 척도도 종교의 신앙과 같은 종교지향 외에 종교의 순기능을 추구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종교성의 부정적인 측면, 즉 종교성의 역기능적 면이 포함되어 있는 척도가 지금까지 없었던 것

은 아니다. 윤희영과 김근향(2015)이 다차원적 종교성/영성 척도 단축형(Brief-Multidimensional Measure of Religiousness/Spirituality Scale; Fetzer Institute/National Institute on Aging Working Group, 1999)을 한국판으로 타당화 하였는데, 이 척도에는 긍정적 영적 경험과 종교적 지지 외에도 부정적 영적 경험과 부정적인 종교적 지지가 요인으로 포함되었다. Pargament, Smith, Koenig과 Perez(1998)도 종교성이 긍정적인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종교적 대처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개발한 문항 14개 중에 절반은 부정적인 종교적 대처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하지만 이 척도가 역기능적 종교성이 어떤 것인지를 측정하는 척도는 아니다.

더 구체적으로 종교성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측면을 염두에 두고 연구되기도 하였는데, 그와 관련하여 종교적 원리주의 성향을 측정하는 도구인 종교적 원리주의 척도(Religious Fundamentalism Scale; Altmeyer & Hunsberger, 1992)도 있다. 한국에서는 정성진, Ji, 김신섭과 서경현(2010)에 의해 번안되어 사용하고 있다. 이 척도는 융통성 없어 보이는 완곡하고 엄격한 종교적 신념이나 행동을 측정한다. 하지만 이런 원리주의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정신건강이나 웰빙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연구결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전은식, 서경현, 2012; 정성진 외, 2010). 그런 결과는 역기능적인 종교성을 심층적으로 탐구하여 그 요인을 검증하고 웰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종교성의 역기능적 측면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런

데 종교성에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더 많기 때문에(Bergin, 1983; Seybold & Hill, 2001), 역기능이 순기능에 가려져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종교성의 순기능에 가려 있는 그것의 역기능을 찾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에서 역기능적 종교성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Genia와 Shaw(1991)는 외적 종교성은 정신건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 주장은 한국인을 대상으로도 실증적으로 검증된 바 있다. 일례로 외적 종교지향은 우울(박미하, 2014)이나 부정적인 종교적 대처(신재은, 현명호, 2010)와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이 있었다. 또한 심리적 단일 변인으로 죄책감이 웰빙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Maltby, 2005). 실제로 죄책감이 건강에 역기능적이라는 것은 더 일찍이 논의된 바 있었다(Tangney, 1993). 그런데 종교와 관계없는 죄책감도 정신건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죄책감을 유발하는 종교성은 정신건강이나 웰빙에 역기능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Pargament 등(1998)의 종교적 대처 척도에서는 힘든 상황을 신의 처벌이나 저주로 생각하는 것, 신에게 불평하는 것, 영적인 차원에서의 불평, 힘들면 악마의 자주나 방해라고 생각하는 것, 힘든 상황에서 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 신의 사랑이나 보살핌을 의심하는 것, 자신이 속한 종교단체가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 등을 부정적인 종교적 대처로 간주하여 측정하고 있다. 한 선행연구(서경현, 2018)에서는 역기능적 종교성을 질적으로 분석한 결과, 웰빙 차원에서 역기능적 종교성으로 보상을 추구하는 종교성, 권력을 지향하는 종교성, 이기적인 종교성, 맹목적인

종교성, 사회적이지 않은 종교성, 실천하지 않는 종교성, 체험이 없는 종교성, 정서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종교성 및 인지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종교성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척도 문항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거쳐 웰빙 차원에서 역기능적 종교성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 문항을 개발하고자 한다. 그런 후 척도의 요인을 분석하여 구성개념 타당도를 검증하고, 그런 요인이나 척도 전체가 주관적 웰빙이나 심리적 웰빙 및 행복감과 같은 웰빙 변인들과 부적 상관이 있고, 분노, 우울, 좌절 및 불안과 같은 정신병리적 요인들과 정적 상관이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준거타당도를 검증하여 타당화 작업을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방 법

참여자

먼저 종교인 6명과 신앙인 6명을 대상으로 역기능적 종교성 문항을 도출하였다. 종교인에는 개신교, 불교, 및 원불교에 속해 있었으며, 신앙인에는 개신교, 천주교, 불교에 속해 있었다. 연령대는 종교인이 만 45세에서 61세까지, 신앙인은 27세에서 65세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그들 중 여성은 종교인 중에 한 명, 신앙인 중에 3명이었다.

본 연구의 주 대상자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신앙인 349명이다. 이들 중에 남성이 167명(17.9%)이고 여성이 182명(52.1%)이었다. 참여자들의 연령은 12세에서 85세까지 분포되어 있었으며 평균은 35.03세($SD=13.51$)였다. 참여자들은 평균 22.51년($SD=12.76$)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들

중에는 불교인이 57명(16.3%), 기독교인이 228명(65.3%), 천주교인이 53명(15.2%), 기타 종교가 8명(2.3%)이었으며, 3명(0.9%)은 종교를 믿은 기간은 기술하였지만 자신의 종교를 밝히지 않았다. 참여자들 중 288명(82.5%)이 주기적으로 종교적 예식(예배, 예불 등)에 참가한다고 보고하였으며, 242명(69.3%)이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를 믿게 된 것이 부모님의 영향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이들 중에 44명(12.6%)이 종교를 개종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27명(7.7%)은 지금 자신이 신앙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가족이 있다고 보고했다.

역기능적 종교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일단 문항분석과 검사-재검사 신뢰도 검증을 위해 종교를 가진 남녀 대학생(대학원생 포함) 173명에게 일차적으로 개발된 역기능적 종교성 문항들(75문항)과 행복감 척도가 포함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들 173명 중에 남성이 91명(52.6%), 여성이 82명(47.4%)이었으며, 141명(81.5%)이 기독교인, 20명(11.6%)이 불교인, 12명(6.9%)이 천주교인이었다.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는 사립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기독교인이 많았다. 그리고 이들의 평균 연령은 27.74세($SD=11.27$)였다. 이들로부터 얻은 자료로 각 문항들과 행복감 간의 관계를 탐색할 수 있었다.

그리고 검사-재검사 신뢰도 검증을 위해 173명에게 75문항의 설문을 추가로 시도하였으며, 141명으로부터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이들 141명 중에 남성이 70명(49.6%), 여성이 71명(50.4%)이었으며, 113명(80.1%)이 기독교인, 18명(12.8%)이 불교인, 10명(7.1%)이 천주교인이었고, 평균 연령은 28.41세($SD=11.80$)이었다.

조사 도구

역기능적 종교성. 역기능적 종교성 척도의 문항들은 면접, 문헌고찰, 종교인 자문을 바탕으로 역기능적 종교성 문항들(75문항)을 개발하였다. 일단 개발된 문항들의 내용을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고 종교를 가진 대학생 집단(대학원생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 문항분석을 하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2차년도 연구의 주요 대상인 신앙인들에게는 대학생 집단의 자료에서 행복감과 정적 상관을 보인 문항들을 제외한 52문항을 사용하였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결과부분에 기술되어 있다.

주관적 웰빙. 역기능적 종교성의 준거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였다. 주관적 웰빙의 하위요인인 삶의 만족은 Diener, Emmons, Larsen 및 Griffin(1985)이 개발한 삶의 만족 척도(SWLS: Satisfaction with Life Scale)를 김정호(2007)가 한국어로 번역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긍정/부정 정서는 조명환과 차경호(1998)의 정서빈도검사로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삶의 만족 문항들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88이었으며,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는 각각 .85와 .77이었다.

심리적 웰빙. 연구 참여자들의 심리적 웰빙은 Ryff(1989)가 개발한 심리적 웰빙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를 손솔과 서경현(2014)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원래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통제력, 삶의 목적, 개인

적 성장과 같은 6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각 요인에서 세 문항만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심리적 웰빙 점수의 총점만을 사용하였으며 문항 간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85였다.

행복감. 대상자들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행복은 Lyubomirsky와 Lepper(1999)의 주관적 행복 척도(SHS: Subjective Happiness Scale)로 측정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김정호(2007)가 번안한 척도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7점으로 평정하는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문항 간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84였다.

정신병리 요인. 정신병리 요인은 분노, 좌절 및 우울은 고경봉, 박중규 및 김찬형(2000)이 개발한 스트레스 반응 척도의 하위요인으로 측정하였고, 불안은 Spielberger의 상태-특성 불안척도(STAI,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Y형을 한국화한 한국판 상태-특성 불안표현 척도(한덕웅, 이장호, 전경구, 1996)로 측정하였으며, 스트레스 반응 척도의 문항에 맞게 각각 6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문항 간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분노는 .81, 우울은 .88, 좌절은 .89, 상태불안 .84, 특성불안 .74였다.

조사 및 분석 절차

본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쳤다(2-1040781-AB-N-01-2017098 HR). 이 연구를 위해 설문 전 참여 대상자들에게는 연구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였고 연구에 참여

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는 다른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연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면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고 공지하였다.

역기능적 종교성 문항들을 도출하기 위해 내용을 종교인과 신앙인을 대상으로 수집하는 과정에서 역기능적 종교성을 인지적 차원, 행동적 차원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정서적 차원을 구체적으로 묻는 면접 절차를 거쳤다. 그리고 진술된 내용과 관련하여 국문학자, 신학자 및 심리학자로부터 자문을 얻어 진술내용을 구분하였으며, 그런 진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문항을 개발하였다.

양적 자료의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3과 AMOS 23에 의해 실행되었다. IBM SPSS Statistics 23으로는 문항분석과 빈도 및 기술통계와 준거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추론 통계분석 방법인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하였다.

요인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먼저 역기능적 종교성 척도 52문항을 최대우도법(ML: Maximum Likelihood estimate)과 사각회전으로 2개의 요인부터 Eigen 값 1이상인 요인 수까지 지정하여 요인분석을 하고 표본 수에 덜 민감하고 간명성을 고려하는 적합도 지수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로 적정 요인 수를 검증하였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탐색적 요인분석은 주로 주성분분석과 직각회전을 사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AMOS 23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와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로 요인구조를 점검하였다.

결 과

역기능적 종교성 문항 개발

이 연구에서는 종교인이나 신앙인으로부터 도출된 132개의 진술과 3명의 전문가들의 자문내용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75개의 문항을 개발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얻은 진술 중에 유사한 내용을 한 문항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진술이 포함된 것이다. 진술된 문항들은 전문가의 검토 후에 설문을 구성하여 173명의 대학생들(대학원생 포함)에게 실시한 후 문항분석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행복감과 상관계수가 정적(+)으로 나타난 문항들은 제외시키기로 하였다. 행복감과는 부적(-) 상관계수를 나타낸 문항들을 채택하였는데, 총 52문항이었다. 참고로 행복감과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문항들은 23문항이었다. 행복감이 웰빙을 대표하는 변인이지만 웰빙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행복감과 유의하지는 않더라도 부적인 상관계수를 보인 문항들은 웰빙 차원에서 역기능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참고로 7점 척도에서 평균(M)이 4이상인 문항은 9문항 밖에 되지 않았으며 2 미만인 문항도 14문항이나 되었다. 표준편차(SD)가 1미만인 문항은 3개, 2이상인 문항은 1개였다.

역기능적 종교성 52문항 요인분석 결과

신앙인 349명을 대상으로 얻은 역기능적 52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은 최대우도법과 사각회전을 이용하여 실행하였다. 그리고 역기능적 종교성 척도의 적정 요인 수를 검증하기 위해 표본 수에

덜 민감하고 간명성을 고려하는 적합도 지수인 RMSEA(root of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이용하였다. 이 방법에서는 RMSEA 값이 .10보다 크면 나쁜 적합도, .10보다 적으면 보통으로 적합도, .08보다 적으면 괜찮은 적합도, 그리고 .05보다 적으면 좋은 적합도로 해석한다 (Browne & Cudeck, 1993). 그리고 RMSEA 값으로 본 적합도의 변화가 .01보다 적으면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여기지만(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적합도가 .05이하가 되기 시작하는 것은 7요인 모형이고 8요인이 되어도 변화량이 .01이어서 간명한 7요인 모형을 선택하였다(표 1).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7요인을 지정하여 최대우도법과 사각회전(oblique rotation)으로 요인분석을 하였다(표 2). 이 분석의 적합도 검사를 위하여 KMO(Kaiser-Meyer-Olkin)의 표본적절성 측정치를 구하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통계치를 산출하였다. KMO가 .70 이상이면 요인분석에 적합한 표본으로 판단하는데, 52문항 역기능적 종교성 척도의 KMO 값은 .93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통해 변인들의 상관행렬이 단위행렬(Identity matrix)이라는 귀무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데, 이 척도에서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에 의한 카이제곱 검증 결과, $\chi^2(1,326)$ 가 9572.72($p < .001$)로 나타나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요인분석을 위한 가정을 충족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7요인이 전체 변량의 53.8%가량을 설명해 주었다(eigen values=14.98, 4.84, 2.04, 1.78, 1.62, 1.41, 1.28). 요인 1(10문항)은 종교적 무력감과 죄책감을, 요인 2(8문항)는 종교적 실천과 성장 부재를, 요인 3(6문항)은 종교적 이해와 체험 부재를, 요인 4(3문항)는 종교적 독선을, 요인 5(8문항)는 처벌 인식과 종교적 이익 추구를, 요인 6(11문항)은 종교적 열등감과 타인 불신을, 그리고 요인 7(6문항)은 죽음의 공포와 종교적 맹목을 묘사하고 있었다(표 2-4). 문항들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종교적 무력감과 죄책감은 .85, 종교적 실천과 성장 부재는 .90, 종교적 이해와 체험 부재는 .80, 종교적 독선은 .65, 처벌 인식과 종교적 이익 추구는 .79, 종교적 열등감과 타인 불신은 .86, 죽음의 공포와 종교적 맹목은 .77, 그리고

표 1. 52문항에 대한 최대우도법 사각회전에서의 각 요인모형의 통계치와 적합도

요인모형	χ^2	df	p	RMSEA
2요인	3157.067	1223	.000	.066
3요인	2770.380	1173	.000	.062
4요인	2478.988	1124	.000	.058
5요인	2241.812	1076	.000	.055
6요인	2013.427	1029	.000	.052
7요인	1835.273	983	.000	.049
8요인	1687.260	938	.000	.047
9요인	1527.187	894	.000	.044
10요인	1380.365	851	.000	.042
11요인	1249.372	809	.000	.039
12요인	1124.323	768	.000	.036

표 2. 최대우도법과 사각회전을 이용한 역기능적 종교성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문항번호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							R ²
	1	2	3	4	5	6	7	
문항 2	.419				-.414			.416
문항 5	.524				-.329			.365
문항 7	.450				-.353		-.332	.455
문항 11	.518				-.317	-.405		.476
문항 15	.725	-.323				-.429	-.394	.578
문항 16	.782				-.306	-.402	-.368	.624
문항 19	.665	-.363		.358	-.432	-.330	-.336	.604
문항 21	.471			.365	-.415	-.371	-.344	.561
문항 30	.486	-.313			-.317	-.457	-.389	.506
문항 36	.564			.348	-.343	-.462	-.467	.366
문항 41		-.540	.473	.362		-.319		.499
문항 42		-.714	.563	.397				.676
문항 43		-.911	.505			-.303		.784
문항 44		-.776	.520		-.303	-.390		.687
문항 45	.335	-.846	.507		-.304	-.370		.736
문항 46	.425	-.633	.464		-.350	-.397		.637
문항 48		-.699	.654					.646
문항 52	.464	-.473	.369		-.415	-.366		.546
문항 1		-.347	.404					.377
문항 4			.371		-.363			.365
문항 47		-.575	.479					.590
문항 49		-.584	.658					.591
문항 50		-.574	.796					.688
문항 51		-.520	.766					.629
문항 25				.498				.372
문항 26	.380			.571			-.429	.525
문항 27	.379			.494		-.476	-.442	.605
문항 3	.301				-.595	-.375		.474
문항 6					-.630			.416
문항 8	.327				-.625		-.396	.522
문항 9	.369				-.649	-.402	-.358	.558
문항 10	.385				-.556	-.383	-.307	.462
문항 20	.424	-.448	.404		-.490	-.458	-.331	.561
문항 23		-.365	.453		-.494	-.301		.469
문항 24			.332		-.338			.363
문항 12	.442	-.322			-.370	-.532		.458
문항 13	.460	-.347	.363		-.505	-.549	-.347	.575

문항 14	.498				-.347	-.516	-.429	.547
문항 17				.341	-.325	-.362		.470
문항 18	.386			.368	-.341	-.433	-.317	.503
문항 22	.313	-.390	.438		-.407	-.524	-.336	.567
문항 28	.355				-.449	-.574	-.457	.571
문항 37		-.327				-.671	-.364	.498
문항 38		-.370				-.714	-.384	.590
문항 39		-.418	.342	.330	-.316	-.558	-.300	.494
문항 40	.381	-.333		.321	-.407	-.639	-.442	.569
문항 29					-.470	-.425	-.519	.504
문항 31						-.471	-.566	.489
문항 32					-.305	-.331	-.727	.518
문항 33				.359			-.446	.338
문항 34	.552			.400			-.611	.548
문항 35	.372			.312	-.389	-.334	-.754	.578
Eigenvalues	14.979	4.837	2.042	1.783	1.623	1.412	1.283	
% of Variance	28.806	9.301	3.927	3.429	3.122	2.715	2.469	
Cronbach's α	.85	.90	.80	.65	.79	.86	.77	.95
Test-retest	.77	.73	.77	.76	.70	.71	.70	.77

주. 요인 1: 종교적 무력감과 죄책감, 요인 2: 종교적 실천과 성장 부재, 요인 3: 종교적 이해와 체험 부재, 요인 4: 종교적 독선, 요인 5: 처벌 인식과 종교적 이익 추구, 요인 6: 종교적 열등감과 타인 불신, 요인 7: 죽음의 공포와 종교적 맹목

전체 문항은 .95이다. 한편,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위한 시도에서 141명으로부터 전후 자료를 얻을 수 있었는데, 전체 역기능적 종교성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7이었으며, 종교적 무력감과 죄책감은 .77, 종교적 실천과 성장 부재는 .73, 종교적 이해와 체험 부재는 .77, 종교적 독선은 .76, 처벌 인식과 종교적 이익 추구는 .70, 종교적 열등감과 타인 불신은 .71, 죽음의 공포와 종교적 맹목은 .70이었다.

한편 이 요인구조를 최대우도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90% 신뢰구간) 값은 .064(.061~.067)로 적합한 모델로 나타났으나,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TLI, CFI는 .778, .790으로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았다. 상대적 적합도 지수가 만족스럽지 않은

것은 하위요인 중에 다른 요인들과 상관이 적은 것이 있기 때문일 수 있다.

52문항 역기능적 종교성 척도의 준거타당도 분석 결과

역기능적 종교성 척도의 준거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역기능적 종교성 점수와 주관적 웰빙 변인과 행복감 그리고 심리적 웰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선 검증하였다(표 2-6). 역기능적 종교성은 주관적 웰빙과 유의한 부적 관계가 있었다, $r=-.44, p<.001$. 주관적 웰빙 요인 중에 삶의 만족($r=-.32, p<.001$)이나 긍정정서($r=-.39, p<.001$)와는 부적 상관이, 부정정서와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r=.37, p<.001$.

그러나 종교적 독선은 부정정서($r=.12, p<.05$)와 는 정적 상관이 있었고 심리적 웰빙($r=-.13, p<.05$)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지만, 삶의 만족이나 긍정정서 그리고 주관적 웰빙 총점 및 행복감과 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또한 죽음의 공포 및 종교적 맹목도 삶의 만족과는 유의한 상관이 없 었다, $r=-.08, n.s.$

역기능적 종교성은 행복감($r=-.44, p<.001$) 및 심리적 웰빙($r=-.32, p<.001$)과는 부적 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기능적 종교성의 모든 하 위요인이 행복감 및 심리적 웰빙과 유의한 상관

을 보였다.

또한 역기능적 종교성 척도의 준거타당도를 검 증하기 위하여 정신병리 변인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표 4). 역기능적 종교성은 상태불안($r=.41, p<.001$), 특성불안($r=.45, p<.001$), 분노($r=.38, p<.001$), 우울($r=.46, p<.001$) 및 좌절 ($r=.37, p<.001$)과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 졌다. 역기능적 종교성의 모든 하위요인이 본 연 구에서 채택한 정신병리 변인들과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었다.

표 3. 52문항 역기능적 종교성 척도 요인과 웰빙 변인 간의 상관행렬(N=349)

변인	삶의 만족	긍정정서	부정정서	주관적 웰빙	행복감	심리적 웰빙
종교적 무력감과 죄책감	-.19***	-.24***	.29***	-.29***	-.31***	-.23***
종교적 실천과 성장 부재	-.39***	-.39***	.37***	-.47***	-.41***	-.30***
종교적 이해와 체험 부재	-.33***	-.36***	.24***	-.38***	-.33***	-.21***
종교적 독선	-.05	-.10	.12*	-.10	-.14*	-.13*
차별인식과 종교적 이익추구	-.19***	-.27***	.27***	-.29***	-.35***	-.19***
종교적 열등감과 타인 불신	-.27***	-.35***	.32***	-.38***	-.42***	-.33***
죽음의 공포와 종교적 맹목	-.08	-.25***	.23***	-.22***	-.24***	-.20***
역기능적 종교성	-.32***	-.39***	.37***	-.44***	-.44***	-.32***

* $p<.05$, *** $p<.001$.

표 4. 52문항 역기능적 종교성 척도 요인과 정신병리 변인 간의 상관행렬

변인	상태불안	특성불안	분노	우울	좌절
종교적 무력감과 죄책감	.26***	.35***	.25***	.30***	.23***
종교적 실천과 성장 부재	.43***	.44***	.34***	.45***	.37***
종교적 이해와 체험 부재	.30***	.32***	.25***	.37***	.28***
종교적 독선	.15**	.15**	.19***	.13*	.13*
차별인식과 종교적 이익추구	.33***	.35***	.31***	.36***	.28***
종교적 열등감과 타인 불신	.37***	.37***	.34***	.40***	.30***
죽음의 공포와 종교적 맹목	.24***	.23***	.32***	.27***	.27***
역기능적 종교성	.41***	.45***	.38***	.46***	.37***

* $p<.05$, ** $p<.01$, *** $p<.001$.

단축형 역기능적 종교성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요인부하량과 공통분 값이 .30이상이면 채택할 할 만하지만, 요인부하량의 절대값이 .40이상이고 공통분 값은 .50이상일 때 좋은 수치로 여겨지기 때문에(Hair, Anderson, Tatham, & Black, 1995), 문항 수를 줄여 단축형 척도를 구성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면서 요인부하량이 적은 문항들을 차례로 삭제하여 요인부하량이 .7 전후의 문항들만 남도록 하였다. 요인구조가 더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주축요인 방법(principal

axis factoring)에 의해서 요인의 개수를 미리 정하지 않고 고유가(eigen value) 1이상인 요인을 추출하는 방식과 직각 회전(varimax rotation)으로 요인을 분석하였다(표 5). 단축형 역기능적 종교성 척도의 KMO 표본적절성 측정치가 .89로 요인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 $\chi^2(136)$ 가 2969.64($p<.001$)로 나타나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요인분석을 위한 가정을 충족하였다.

17문항의 요인 수는 4개로 나타났으며(eigen values=6.17, 2.70, 1.30, 1.00), 이 네 요인이 전체

표 5. 주성분분석과 직각회전을 이용한 역기능적 종교성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17문항)

문항번호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				R ²
	1	2	3	4	
문항 43	.748				.688
문항 44	.733				.630
문항 45	.724				.684
문항 47	.784				.641
문항 48	.795				.664
문항 49	.755				.611
문항 50	.813				.667
문항 51	.749				.591
문항 15		.775			.702
문항 16		.830			.759
문항 19		.692			.595
문항 6			.747		.577
문항 8			.786		.667
문항 9			.744		.669
문항 27				.718	.599
문항 38				.774	.705
문항 40				.748	.715
<hr/>					
Eigenvalues	6.171	2.695	1.297	1.001	
% of Variance	36.302	15.815	7.631	5.889	
<hr/>					
Cronbach's α	.91	.79	.72	.70	.89
<hr/>					
Test-retest	.72	.72	.67	.48	.71

주. 요인 1: 종교적 체험 및 성장 부재, 요인 2: 외식적 종교성, 요인 3: 이익추구적 종교성, 요인 4: 자기중심적 종교성

변량의 65.7%가량을 설명해 주었다. 요인 1(8문항)은 종교적 체험 및 성장 부재를, 요인 2(3문항)는 외식적 종교성을, 요인 3(3문항)은 이익추구적 종교성을, 그리고 요인 4(3문항)는 자기중심적 종교성을 묘사하고 있었다. 문항들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종교적 체험 및 성장 부재는 .91, 외식적 종교성은 .79, 이익추구적 종교성은 .72, 자기중심적 종교성은 .70, 그리고 전체 문항은 .89였다. 단축형 전체 역기능적 종교성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1이었으며, 종교적 체험 및 성장 부재는 .72, 외식적 종교성은 .72, 이익추구적 종교성은 .67, 자기중심적 종교성은 .48이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90% 신뢰구간) 값은 .092(.083~.101)로 52문항 척도보다는 조금 더 높아졌으나,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TLI, CFI는 각각 .857, .881로 좋아졌다. 이는 좋은 적합도는 아니었지만 수용 가능

한 수준이었다.

단축형 역기능적 종교성 척도의 준거타당도 분석 결과

단축형 역기능적 종교성 척도의 준거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단축형 역기능적 종교성 점수와 주관적 웰빙 변인과 행복감 그리고 심리적 웰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선 검증하였다(표 6). 단축형 역기능적 종교성 척도 총점은 주관적 웰빙과 유의한 부적 관계가 있었다, $r=-.44, p<.001$. 주관적 웰빙 요인 중에 삶의 만족($r=-.35, p<.001$)이나 긍정정서($r=-.39, p<.001$)와는 부적 상관, 부정정서와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r=.34, p<.001$. 그러나 이익추구적 종교성은 삶의 만족과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r=-.05, n.s$.

단축형 역기능적 종교성 척도의 총점은 행복감

표 6. 단축형 역기능적 종교성 척도(17문항) 요인과 웰빙 변인 간의 상관행렬($N=349$)

변인	삶의 만족	긍정정서	부정정서	주관적 웰빙	행복감	심리적 웰빙
종교적 체험 및 성장 부재	-.37***	-.37***	.28***	-.42***	-.33***	-.25***
외식적 종교성	-.23***	-.24***	.33***	-.32***	-.29***	-.17**
이익추구적 종교성	-.05	-.19***	.18***	-.16**	-.21***	-.09
자기중심적 종교성	-.15**	-.18***	.17**	-.20***	-.25***	-.24***
역기능적 종교성	-.35***	-.39***	.34***	-.44***	-.40***	-.28***

* $p<.05$, ** $p<.01$, *** $p<.001$.

표 7. 단축형 역기능적 종교성 척도(17문항) 요인과 정신병리 변인 간의 상관행렬

변인	상태불안	특성불안	분노	우울	좌절
종교적 체험 및 성장 부재	.35***	.36***	.27***	.39***	.30***
외식적 종교성	.26***	.33***	.26***	.28***	.25***
이익추구적 종교성	.22***	.24***	.18***	.22***	.19***
자기중심적 종교성	.24***	.24***	.26***	.22***	.18***
역기능적 종교성	.39***	.42***	.33***	.43***	.34***

*** $p<.001$.

($r=-.40, p<.001$) 및 심리적 웰빙($r=-.28, p<.001$)과는 부적 관계가 있었다. 단축형 역기능적 종교성의 대부분이 하위요인이 행복감 및 심리적 웰빙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지만, 이익추구적 종교성은 심리적 웰빙과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r=-.09, n.s.$

또한 단축형 역기능적 종교성 척도의 준거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정신병리 변인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표 7). 단축형 역기능적 종교성의 총점은 상태불안($r=.39, p<.001$), 특성불안($r=.42, p<.001$), 분노($r=.33, p<.001$), 우울($r=.43, p<.001$) 및 좌절($r=.34, p<.001$)과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단축형 역기능적 종교성 척도의 모든 하위요인이 본 연구에서 채택한 정신병리 변인들과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결과, 종교인과 신앙인으로부터 얻은 질적 자료 그리고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역기능적 종교성 문항을 도출한 후 문항분석과 요인분석으로 하고 내적 일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검토하고 심리적 웰빙, 주관적 웰빙 및 정신병리 변인들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준거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개발된 척도는 7요인 5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4요인 17문항의 단축형 척도도 산출되었다. 52문항 척도의 요인으로는 종교적 무력감과 죄책감, 종교적 실천과 성장 부재, 종교적 이해와 체험 부재, 종교적 독선, 처벌 인식과 종교적 이익추구, 종교적 열등감과 타인 불신 그리고 죽음의 공포와 종교적 맹목이었다. 17문항 단축형 척도의 요인은 종교적 체험

및 성장 부재, 외식적 종교성, 이익추구적 종교성 및 자기중심적 종교성이었다.

일단 종교적 실천 혹은 체험과 성장의 부재 및 종교에 대한 이해 부재는 내적 종교지향의 충족되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내적 종교지향은 정신건강이나 웰빙과 정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신재은, 현명호, 2010; Genia & Shaw, 1991)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을 하면서 그런 종교적 경험이나 성장이 없을 경우 웰빙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역으로 종교적 이익추구나 외식적 종교성은 외적 종교지향으로 선행연구들(박미하, 2014; Genia & Shaw, 1991)에서처럼 정신건강이나 웰빙에 역기능적이라는 결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종교적 죄책감이 역기능적 종교성으로 나타난 것은 웰빙에 대한 죄책감의 부정적 효과(Maltby, 2005)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종교적 무력감이나 종교적 열등감이 웰빙에 역기능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무력감이나 열등감의 정신건강에 대한 부정적 효과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Orbach & Hadas, 1982). 다만 본 연구에서는 종교적인 차원의 무력감이나 열등감도 웰빙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종교적 독선이나 맹목 혹은 자기중심적 종교성은 융통성 없고 절대적인 종교성을 의미하는데 그런 종교성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대인관계에서 부정 정서를 자주 경험하게 한다는 주장(Hunsberger, Alisat, Pancer, & Pratt, 1996)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신앙을 하면서 경험하는 처벌인식은 종교적 대처 척도(Pargament et al., 1998)에서 측정하는

‘힘든 상황을 신의 처벌’과 관계가 있어 보인다. 신앙을 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면 벌을 받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행복감이나 주관적 웰빙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척도의 부정적인 종교적 대처에는 신의 능력 혹은 사랑이나 보살핌에 대한 불신만이 포함되어 있는데, 본 척도에서는 신앙을 하면서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웰빙에 역기능적으로 나타났다. 그런 가운데 본 척도에서 역기능적인 종교성으로 나타난 죽음에 대한 공포는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나 신의 보살핌에 대한 불신과 상관이 있을 수 있다. 아니면 신의 처벌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는 질적으로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에서 역기능적 종교성을 질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서경현, 2018)에서는 나타난 주제인 보상을 추구하는 종교성,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 종교성, 맹목적인 종교성, 사회성에 문제가 있는 종교성, 실천하지 않는 종교성 및 체험이 없는 종교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다만 서경현(2018)의 연구에서 역기능적인 것으로 나타난 ‘권력을 지향하는 종교성’은 대개 종교인들이 진술하고 신학자가 지적한 내용으로 실제로 신앙인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종교성이 아닐 수 있다. 한편 이런 결과는 이 연구에서 일차 문항분석의 대상이 20대였기 때문에 권력을 지향하거나 권위주의적 종교성이 존재하지 않아 문항에서 제외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문항 분석 과정에서 그런 문항들은 행복감과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상관계수가 양수로 나타나 제

외된 것이었다. 또한 질적 연구에서 정서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종교성 및 인지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종교성은 그런 문항이 웰빙에 원인이라기보다 웰빙이나 정신건강 그 자체를 대변하는 문항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는 역기능적인 종교성의 원인을 연구할 기반을 마련해 준다. 우선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역기능적 종교성 간의 관계를 연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성격이 역기능적 종교성과 상관이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역기능적 종교성이 어떤 식으로 발전되는지를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종교를 처음 가지게 되는 시점부터 역기능적 종교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에 의해 종교를 가지게 된 사람들, 즉 모태 신앙인들의 경우 역기능적 종교성을 가지게 되는데 부모의 영향이 있는지도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모양육태도가 역기능적 종교성을 가지게 하는데 영향력이 있는지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른 종교적 특성이 역기능적 종교성과 상호작용을 하는지도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웰빙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역기능적 종교성을 표현하는 여러 문항들을 척도에 많이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그렇다보니 52 문항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에는 요인부하량과 공통분의 절대값이 .30이상이면서 .35이하인 문항들도 포함되었다. 다시 말해 Hair 등(1995)이 설명하는 요인부하량 .40과 공통분 .50 이상의 좋은 문항들만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52문항 척도는 이런 한계를 감안하고 사용해야 한다. 17문항

의 단축형 척도의 경우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요인부하량은 대부분 .70이상이었고 공통분 값이 .55이었다. 또한 17문항의 척도의 경우는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도 수용할 만 했다.

개발된 52문항 척도도 연구를 위해 활용할 수 있지만 17문항 단축형 척도도 연구용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52문항 척도에 7개의 요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척도를 사용하면 종교를 가진 내담자들을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위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종교적 독선이 비신앙인이나 다른 신앙인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개인의 웰빙에 대한 영향은 적었다는 것이다. 이는 종교적 원리주의가 신앙인들의 웰빙 변인들과 부적 관계가 아닌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전은식, 서경현, 2012; 정성진 외, 2010)과 관계가 있는 듯하다. 그런 가운데 종교적 실천과 성장 부재가 웰빙 변인들이나 정신건강 변인과 가장 많은 변량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앙인들을 상담하거나 심리치료 하는 실무자들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역기능적 종교성 척도가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요인분석 결과를 보고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의미 있는 요인구조가 나타났지만 요인들 간에 유의한 상관을 보였어도 그 수준은 그리 높지 않았다. 이런 현상은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적합도 수준을 다소 낮추는 효과가 있었지만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위해서는 더 가치 있을 수 있다. 이런 결과는 특정 역기능적 종교성이 다른 역기능적 종교성과 밀접한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것으로 어느 정도

독립적일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담이나 심리치료에서 어떤 한 역기능적 종교성 요인에 변화를 주어도 다른 역기능적 종교성이 자동으로 크게 변화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역기능적 종교성 척도가 웰빙 변인이나 정신건강 변인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준거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역기능적 종교성 척도로 얻은 점수가 긍정적인 종교적 대처보다 부정적인 종교적 대처와 더 많은 변량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 척도가 웰빙 차원에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종교성을 측정하는 데에 특화된 것이라는 것을 방증한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를 역기능적 종교성에 관한 탐구하기 위한 연구용 뿐 아니라 종교를 가진 내담자를 상담하거나 심리치료를 위한 진단용으로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를 다양한 대상자들에게 적용하며 추후 타당화 작업을 계속하며 고도화시킬 필요도 있다. 특히 종교성은 문화에 따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문화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내창(2001)은 내·외적 종교지향 척도(I/E-R)가 한국 문화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한국인에게서는 내·외적 종교지향의 요인구조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한국인에게서는 내적 종교지향과 외적 종교지향 중에 어떤 것은 긍정적이고 어떤 것은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점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요인구조가 다른 문화권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동일한 문

항을 사용하더라도 요인분석은 다시 하여 활용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고경봉, 박중규, 김찬형 (2000). 스트레스반응척도의 개발. *신경정신의학*, 39, 707-719.
- 고경석 (2019, 3, 26). 한국인 무슬림 “테러 일삼는 나쁜 종교? 그저 평범한 종교.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3251021740677?did=NA&dtype=&dtypecode=&pmnewsid=>에서 2019, 6, 24 자료 얻음.
- 김정호 (2007). 삶의 만족 및 삶의 기대와 스트레스 및 웰빙의 관계: 동기상태이론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 325-345.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 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박미하 (2014). 기독교인의 종교성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자존감의 매개효과. *신앙과 학문*, 19(1), 77-96.
- 서경현 (2018). 웰빙 차원에서 역기능적 종교성에 관한 질적 탐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및사회문제*, 24(2), 193-220.
- 서경현, 전검구 (2004). 영적 안녕, 생활 스트레스 및 대처.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 333-350.
- 손술, 서경현 (2014). 대학생의 감사 성향과 심리적 웰빙 간의 관계: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 619-635.
- 신재은, 현명호 (2010). 종교성향, 종교적 대처와 상황적 용서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 699-710.
- 유승무 (2013). 동양사회 내재적 종교성과 베퍼의 동양 사회론. *동아시아불교문화*, 13, 264-290.
- 윤혜영, 김근향 (2015). 다차원적 종교성/영성척도 단축형 한국어판의 타당화. *한국융합학회논문지*, 6(5), 257-274.
- 이현주, 이신형 (2018). 기독교(목회)상담에서 영성평가의 필요성과 적용.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9(3), 191-217.
- 전검구, 정봉도, 김영환 (2000). 생활스트레스, 영적 안녕 및 우울간의 관계. *난청과 언어장애연구*, 23, 311-325.
- 전은식, 서경현 (2012). 신앙인들의 종교지향, 종교적 원리주의, 영적 웰빙 및 주관적 웰빙.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7, 1067-1086.
- 정성진, Ji, 김신섭, 서경현 (2010). 종교지향과 주관적 웰빙의 관계에 대한 종교적 원리주의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 19-41.
- 정지나 (2019, 6, 23). 강남 원룸서 집단자살.. 원인이 ‘사이비 종교’? 별이라는 명목으로 구타, ‘오대양 사건’ 떠올라. *아시아뉴스통신*. <http://www.anews.com/detail.php?number=1832335&thread=09r02>에서 2019, 6, 24 자료 얻음.
- 조명환, 차경호 (1998). 삶의 질에 대한 국가간 비교. 서울: 집문당.
- 최현중 (2011). 한국인의 종교적 욕구 분석. *신학과 실천*, 28, 833-856.
- 한내창 (2001). 우리문화에서 I/E 및 기타 종교성 척도. *한국사회학*, 35(6), 193-215.
- 한덕웅, 이장호, 전검구 (1996). Spielberg의 상태-특성불안 검사 Y형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 1-14.
- Allport, G. W., & Ross, J. M (1967). Personal religious orientation and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432-443.
- Altmeyer, B., & Hunsberger, B. (1992). Authoritarianism, religious fundamentalism, quest, and prejudice.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2, 113-133.
- Andreasen, N. J. C. (1972). The role of religion in depression.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11, 153-166.
- Ashkanani, H. R.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sity and subjective well-being: A case of Kuwaiti car accident victims. *Traumatology: An*

- International Journal*, 15(1), 23-28.
- Bergin, A. E. (1983). Religiosity and mental health: A critical reevaluation and meta-analysi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14, 170-184.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92). Newbury Park, CA: Sage.
- Chamberlain, K. & Zika, S. (1989). Religiosity, life memory, and well-being: Some relationships in a sample of women.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8, 411-420.
- Chatters, L. M., Bullard, K. M., Taylor, R. J., Wodward, A. T., Neighbors, H. W., & Jackson, J. S. (2008). Religious Participation and DSM-IV Disorders Among Older African Americans: Findings from the national survey of American life. *The 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16, 957-965.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Diener, E., Tay, L., & Myers, D. G. (2011). The religion paradox: If religion makes people happy, why are so many dropping ou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1(6), 1278-1290.
- Ellis, A. (1980). Psychotherapy and atheistic values: A response to A. E. Bergin's "Psychotherapy and religious valu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8, 635-639.
- Ellison, C. W. (1983). Spiritual well-being: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11(4), 330-340.
- Fetzer Institute/National Institute on Aging Working Group (1999). *Multidimensional measurement of religiousness/spirituality for use in health research* (pp. 1-10), Kalamazoo, MI: Fetzer Institute.
- Genia, V. & Shaw, D. G. (1991). Religion, intrinsic - extrinsic orientation, and depression.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32, 274 - 283.
- Giorgi, A. (2009). *The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Method in Psychology*. Pittsburgh, PA: Duquesne University Press.
- Gorsuch, R. L., & McPherson, S. E. (1989). Intrinsic/Extrinsic Measurement: I/E-Revised and Single-Item Scale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8, 348-354.
- Hackney, C. H., & Sanders, G. S. (2003). Religiosity and mental health: A meta-analysis of recent studie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42(1), 43-55.
- Hair, J. F., Anderson, R. E., Tatham, R. L., & Black, W.C. (1995). *Multivariate Data Analysis* (4th ed.). NJ: Prentice Hall Inc.
- Hunsberger, B., Alisat, S., Pancer, S. M., & Pratt, M. (1996). Religious fundamentalism and religious doubts: Content, consciousness and complexity of thinking.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Psychology of Religion*, 6, 39-49.
- Kirkpatrick, L. A. (1997). A longitudinal study of changes in religious belief and behavior as a function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adult attachment style.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6, 207-217.
- Koenig, H. G., & Larson, D. B. (2001). Religion and mental health: Evidence for an association. *International Review of Psychiatry*, 13, 67-78.
- Larson, D. B., Sherrill, K. A., Lyons, J. S., Craigie, F. C., Thielman, Jr., S. B., Greenwold, M. A., & Larson, S. S. (1992). Associations between dimensions of religious commitment and mental health reported in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and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 1978 - 1989.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9, 557-559.
- Lyubomirsky, S., & Lepper, H. S. (1999).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46, 137-155.
- Maltby, J. (2005). Protecting the Scared and expressions of ritualit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xtrinsic dimensions of religiosity and unhealthy guilt.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78, 77-93.
- Orbach, E., & Hadas, Z. (1982). The elimination of learned helplessness deficits as a function of induced self-esteem.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6(4), 511-523.
- Pargament, K. I., Smith, B. W., Koenig, H. G., & Perez, L. (1998). Patterns of positive and negative religious coping with major life stressor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7(4), 710-724.
- Paul, G. S. (2005). Cross-National Correlations of Quantifiable Societal Health with Popular Religiosity and Secularism in the Prosperous Democracies. *Journal of Religion & Society*, 7, 1-17.
- Provonsha, M. (2006). Religious Belief and Societal Health. *Skeptic*, 12(3), 26-29.
- Rosenstiel, A. K., & Keefe, F. J. (1983). The use of coping strategies in chronic low back pain patients: Relationship to patient characteristics and current adjustment. *Pain*, 17, 33 - 44.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Seybold, K. S., & Hill, P. C. (2001). The role of religion and spirituality in mental and physical health.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0, 21-24.
- Tangney, J. P. (1993). Shame and guilt. In C. G. Costello (Ed.), *Symptoms of depression* (pp. 161-180). New York: Wiley.
- Veenhoven, R. (1994). *Correlates of Happiness* (3 Vols.). Rotterdam, The Netherlands: RISBO, Center for Socio-Cultural Transformation.
- Wilber, K. (1997). *The eye of spirit*. Boston: Shambhala Publication.
- Witter, R. A., Stock, W. A., Okum, W. A., & Haring, M. J. (1985). Educa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a meta-analysis.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6, 165-173.
- 원고접수일: 2019년 7월 3일
 논문심사일: 2019년 7월 17일
 게재결정일: 2019년 8월 5일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Dysfunctional Religiosity Scale for Well-being

Kyung-Hyun Suh
Dept. of Counseling Psychology
Sahmyook University

Although religiosity has many positive functions for human's well-being, there is also dysfunctional religiosity.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dysfunctional religiosity scale and examine its validity in this study. Previously, researcher interviewed religious people about which they believed to be dysfunctional in terms of well-being. And, items of dysfunctional religiosity scale based on the result of the interviews, previous studies, and the expert's consultation were developed. First, developed items of dysfunctional religiosity were provided to 170 male and female religious college students for item analysis and examining test-retest reliability. And, 349 religious people were surveyed to measure the 52-item dysfunctional religiosity scale obtained after item analysis. Subjective well-being including life satisfaction and positive/negative affects, psychological well-being, feeling of happiness, and psycho-pathological factors such as anger, anxiety, frustration, and depression, and religious coping strategy for examining criterion validity were administrated. With this procedure, the 52-item dysfunctional religiosity scale and the 17-item short form scale were finally developed. The 52-item scale consisted of seven factors, and the 17-item short-form scale consisted of four factors. Factors of the Dysfunctional Religiosity Scale negatively correlated with subjective well-being, feeling of happin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while they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psycho-pathological factors. The Dysfunctional Religiosity Scale could be practical for diagnosing mental problems and counseling religious people.

Keywords: scale development, dysfunction, religiosity, well-being

부록. 역기능적 종교성 척도 문항

1. 나는 사실 내가 믿는 종교의 경전(성경, 불경 등)의 내용을 잘 모른다.
2. 기도나 종교적 수행을 많이 하는데, 일이 잘 안 풀리면 답답하다.
3. 나는 신앙을 하면서 벌 받았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4. 나는 뜻이 맞지 않으면 교파나 종교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5. 나는 이기적인 기도를 할 때가 있다.
6. 내가 신앙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재정적인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이다
7. 남들이 나에게 종교와 관련하여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곤 한다.
8.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려고 한 적이 있다.
9. 종교단체(교회, 절 등)에서도 나는 내 개인적 이익을 생각한다.
10.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신앙인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을 참지 못한다.
11. 종교가 내 자신이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든다.
12.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들에게 내 얘기를 털어 놓기 어렵다.
13. 종교를 갖는 것이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지 못한다.
14. 신앙을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더 초라하게 느껴진다.
15. 신앙인들에게 보이는 내 모습과 실제의 나는 다르다.
16. 나는 신앙이 좋은 척하고 다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17. 나는 내가 믿지 않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18. 나는 내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멀리한다.
19. 신앙을 하면서도 내 마음에는 불평과 원망이 생긴다.
20.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
21. 나는 종교집회(교회, 절 등)에 가면 남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게 된다.
22. 신앙이 나에게 실제로 위안이 되지 않는다.
23. 나는 자기만족을 하려고 신앙을 하는 것 같다.
24. 죄를 짓는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만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25. 나는 종교적인 비난은 참기 어렵다.
26. 나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나 다른 교파에 속한 사람과 교리논쟁을 하곤 한다.
27. 다른 사람들이 내 종교적 견해가 너무 독선적이라고 말한다.
28. 나는 종교집회(교회, 절 등)에 가면 열등감을 더 느낀다.
29. 종교가 나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한다.
30. 나는 종교를 가지게 된 후 부담감을 많이 느낀다.
31. 신앙 때문에 가족과 심리적으로 멀어졌다.
32. 나는 종교단체(교회, 절 등)에서 말을 함부로 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33. 만약 신앙을 지켜야 한다면 물리적 힘을 사용해서라도 대처해야 한다.
34. 신앙을 하면서 나는 다른 신앙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한다.
35. 나는 종교단체(교회, 절 등)에서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곤 한다.

-
36. 나는 신앙을 하면서 후회를 하거나 죄책감을 느낀다.
 37. 나는 종교단체(교회, 절 등)에서 만나는 신앙인들과 어울리기 어렵다.
 38. 같은 종교를 믿고 있는 신앙인들 중에도 내가 신뢰할 사람은 별로 없다.
 39. 이상하게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남들에게 베풀게 되지는 않는다.
 40. 나와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주는 것 없이 원하는 것만 많다.
 41. 나는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봉사활동을 실제로 하기는 어렵다.
 42. 신앙인으로 실천할 것들이 많은데 나는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43. 내 신앙은 좀처럼 성장하지 않고 있다.
 44. 요즘 나는 신앙적 차원에서 얻어지는 것이 없다.
 45. 나는 신앙인으로서 내면의 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6. 나는 의무감에 신앙을 하고 있다.
 47. 나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종교적인 체험을 하지 못했다.
 48. 나는 조용히 종교적 명상을 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49. 나는 요즘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
 50. 나는 신앙인으로서 초자연적 종교체험을 하지 못했다.
 51. 어려움을 겪을 때도 나는 신(하나님, 부처님 등)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는 못한다.
 52. 신앙을 하면서 나는 자주 좌절한다.
-